

	일본 (도쿄) 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성용찬 소장
		일시	2024. 6.

CEPA Insight

- ① 도쿄도 출산율 0.99, 일본 최저이며 1 이하로는 유일한 지역
- ② 엔화 절하로 국력 약화, 반전의 해법

① 도쿄도 출산율 0.99, 일본 최저이며 1 이하로는 유일한 지역

- 자녀 양육과 주거를 위한 시간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
 - 5일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3년 합계출산율은 1999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도도부현에서 전년 수준을 밑돌았으며, 가장 심각한 것은 도쿄에서 0.99로, 일본에서 유일하게 1 이하로 떨어짐. 미혼과 늦은 결혼의 영향 외에도, 자녀 양육과 주거를 위한 시간 부족이 주요 원인
- 도쿄도 지사 '고이케유리코', 관련 브리핑 내용
 - 고이케 유리코(小池百子子) 도쿄 도지사는 5일 도쿄도청에서 취재진에게 "상당히 힘들다"며 "미래에 대한 불확실성, 정규직과 비정규직,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"고 언급
 - 2003년에도 1명 미만이었으나, 그 이후로 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개선되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둘 다 감소하고 있음.
- 낮은 출생율 세부 원인과 관련 데이터
 1. **미혼의 비율이 높음.** 국립인구사회보장연구소에 따르면 도쿄의 50세 미혼율은 남성 32.15%, 여성 23.79%(모두 20세)로 일본에서 가장 높음(출산율의 분모는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이며, 독신 여성이 많은 지역에서는 출산율이 낮은 경향)
 - 미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8%가 독신의 장점으로 ① 자유롭게 행동하고 살 수 있어서 ②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없어서 ③ "경제적으로 부유해서 順.

※ 도쿄도는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30.7세로 가장 높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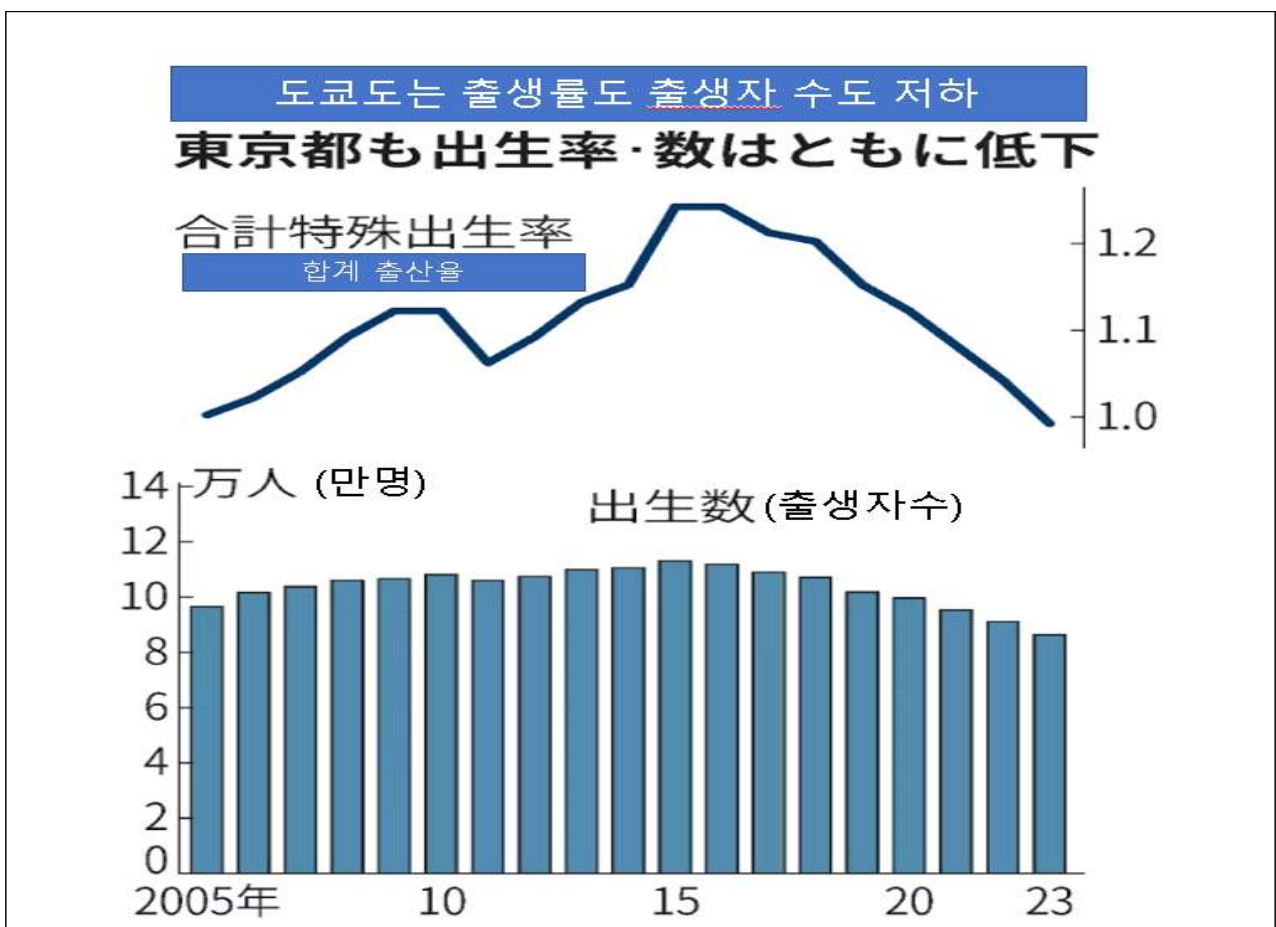
2.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키울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. 2018년 주택 및 토지 통계 조사에 따르면 도쿄 인구의 47%가 45분 이상 통근하고 있으며, 가나가와현, 지바현, 사이타마현 3개 현에 이어 일본에서 네 번째로 높았음. 22년간의 월간 노동 조사에 따르면, 도쿄의 평균 잔업 시간은 월 11.7시간으로 아이치현과 함께 가장 길며, 관련성 있어 보임.

3. 높은 교육비도 아이를 많이 낳기 어려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. 제23회 가계예산 조사(2인 이상 가구)에 따르면 도쿄 23구의 월 비용은 2.4만엔으로 전국 평균의 2배가 넘었으며, 사립학교와 학원의 학비는 비쌌.

※ 도도부현별 출생율(높은 지역)

전국 : 1.20 / (나가사키) 1.49 / (미야자키) 1.49 / (가고시마현) 1.48 / (사가현) 1.46

4. 최근 집값 상승과 주택의 협소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.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도쿄를 떠나는 경우가 많음. 도쿄도 신주쿠시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3구 신축 맨션의 평균 가격은 23년 1억 1,483만엔으로 전년 대비 39% 상승해 처음으로 1억 엔을 돌파함.



② 엔화 절하로 국력 약화, 반전의 해법

- "엔화 약세는 일본 경제에 긍정적"이라는 디플레이션 시대의 저주가 엔화 가치 하락
 - 물가와 임금이 오르기 시작한 지금이야말로 성장 모델을 다시 그려볼 시점
 - 엔화가 약 3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급락하는 것을 보았을 때 외환 위기를 상기시킴(총리의 비서 중 한 명). 2024. 4월과 5월의 긴 연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1달러가 160엔 수준까지 하락함
- 엔화 약세는 서서히 일본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음.
 - 미야기현 도미야시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약 5,800명을 대상으로 급식하는 학교급식소에서는 소고기가 메뉴에서 사라졌음. 쌀과 우유 가격은 각각 9%씩 올랐고, 쇠고기는 더 이상한 끼에 300엔에서 360엔의 예산에 맞지 않아서 예전처럼 메뉴를 구성할 수 없음(학교 영양사).
 -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도매가격은 1991년 수입 자유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여 수입 쇠고기 구매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. 지난 5월, 한 관련 업자는 미국의 조달처로부터 "할인은 어렵고, 엔화 약세는 일본 측의 문제다."라는 이메일 받음.
- 이는,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힘은 물론 인적자원, 과학기술, 국방력으로 이어짐.
 - levels.fyi 사이트에 따르면 2023년 말 도쿄 정보 기술(IT) 엔지니어의 평균 연봉은 달러 기준으로 \$62,530로, 미국 미스터·미스 베이 지역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며, 싱가포르와 베이징보다 약 30% 낮음.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일본에서 일할 인센티브가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옴.
 - 지난 4월 도쿄공업대학(Tokyo Institute of Technology)에서 가동을 시작한 최신 슈퍼컴퓨터는 엔화 가치 하락으로 비용이 30% 증가하는 타격을 입음.
 - 국방 분야에서는 F-35A 스텔스 전투기 등이 미국 조달에 따른 비용 증가로 국방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임.
- 일본 경제는 더 이상 엔저에 의존할 단계가 아님
 - 수출을 통해 돈을 벌어 성장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경제모델에서 졸업했음.
 - 경제학자 제프리 크로서가 주창한 국제수지 발전단계설에 근거하면, 2010년대부터 해외 이자 배당으로 무역적자를 메우는 단계로, 엔화가 약세를 보여도 수출 물량은 늘지 않아 무역적자가 고착화되고 있음.

○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시급히 구축

- 전국 국제수지 적자에서 흑자를 기록했지만, 규슈경제권은 흑자 기록(주요 자동차 제조 기지가 있으며, TSMC를 중심으로 제조 네트워크 구축의 결실)
- 규슈 지역은 제조업의 집종을 위한 안정적 전력 공급(원자력 발전소 운영이 역할)
- 다른 국가 예, 스위스는 인건비가 높지만, 화학, 의약품 중심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기업 육성의 산업구조 구축함. 영국은 파운드화 위기 시 이민·투자 규제 완화 등으로 돌파
-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으로 국내 기업들까지 해외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투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독자적 성장 모델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

(출처 : 니혼게자이신문, 2024. 5. 4, “다양한 관점에서 뉴스 생각하기 코너”, 코야마 켄타로 리서치 책임자 겸 수석이코노미스트 외 2명)